지난 26일 방송된 MBN '당신이 바로 보이스퀸'에서는 본선 3라운드 팀 경연이 펼쳐졌다. 국악과 대중가요를 접목해 압도적 1위에 오른 '소리퀸즈', 환상적인 고음으로 파워보컬을 재정의한 '드럼통타이거', 가락진 트로트무대를 선보인 '뽕자매'(왼쪽부터). 〈사진 제공=MBN〉

목요예능 절대강자 보이스퀸… 결선 앞두고 강릉 달궜다

국악·댄스·트로트·발라드 등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 사로잡아
국악 소리퀸즈 압도적 1위 '왕좌'
시청률 8.4% 목요예능 1위 고수

결선까지 1라운드를 남긴 보이스퀸이 강릉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궜다.

지난 26일 방송된 MBN 목요 예능 프로그램 '당신이 바로 보이스퀸' 6번째 에피스도에서는 본선 3라운드 팀 경연이 그려졌다. 국악부터 댄스, 발라드, 트로트까지 다채로운 소리의 향연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지난 방송부터 이어진 '미니콘서트-강릉대첩'에서는 국악 최강자 '소리퀸즈'(조엘라, 이미리, 전영랑, 박연희, 이유나)가 판소리 무대로 관객을 압도했다. 주부의 공감을 자아내는 가사에 우리 가락을 덧댄 곡 '천태만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경력단절이 웬 말이냐'는 개사로 집안일·육아·명절 스트레스에 지친 주부들 마음을 달랬다. 강릉 주부판정단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응원을 보냈다. 사물놀이에 대중가요를 접목한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부 판정단 눈높이에 맞춘 곡 구성으로 압도적 1위에 올랐다.

한껏 달아오른 무대에 '고음' 부대가 불을 질렀다. 남 다른 소리통을 보유한 팀 '드럼통 타이거'(야부제니린, 문정옥, 안이숙, 정수연, 이주리)는 '파워보컬이란 이런 것이다'를 증명했다. 무대 동선이 꼬이는 돌발 실수 속에서도 능숙한 무대 매너와 타고난 가창력으로 '난 괜찮아'를 완벽히 소화했다. 대한민국 모든 주부를 향해 바치는 '걱정말아요 그대'에 퀸메이커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다른 팀들의 긴장감을 높인 '드럼통 타이거'는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임을 증명했다. 퀸메이커들 호평 속에 2위 자리에 오른 팀은 관중평가 합산 점수에서 3위로 밀려났다.

또 다른 고음퀸 조 '성난 돌고래'(박진영, 장한이, 이해진, 최세연, 주설옥)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콘셉트로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시원한 고음을 발사해 무대 포문을 연 이 팀은 '화려한 싱글'과 '멍'으로 주부들 속풀이를 대신했다. 노부부 인생을 담은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관객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고음의 향연 속에서 댄스팀들 무대도 빛이 났다. '추억의 배터리'(강진선, 김루아, 김미영, 김시내, 박은정)는 댄스 퍼포먼스를 섞어내며 무대 차별화를 했다. '사랑의 트위스트'와 '정말로' 등으로 흥겨운 무대를 꾸몄고, 주부판정단들과 합동무대를 펼쳐 의미를 더했다.

주부들의 '최애' 트로트 무대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트로트 최강자인 '뽕자매들'(윤은아, 최연화, 전혜자, 김향순, 강유진)은 구성지고 차진 멘트로 퀸메이커와 관객을 사로잡았다. 멤버 각자만의 꺾기 신공으로 '아모르파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최종순위는 1위 소리퀸즈, 2위 닐리리맘마, 3위 드럼통 타이거, 4위 다섯불기둥, 5위 뽕자매들, 6위 성난 돌고래, 7위 추억의 배터리로 발표됐다. 다채로운 무대에 시청률은 빛을 발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보이스퀸 6회는 8.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분당 최고시청률은 9.4%까지 치솟았다. 목요 예능 최고 기록이다. 다음주부터는 결선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4라운드가 진행된다. 강영운 기자

주지스님들이 천막으로 간 까닭은

자승 전 총무원장 등 스님 9명
위례 천막법당서 동안거 수행
난방 없이 하루 14시간 좌선
"한국 불교 발전·화합 기원"

외부와 단절된 채 진행되고 있는 위례 신도시 천막 수행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스님과 불자가 철야 법회를 열고 있다.

경기 하남·위례에 불심이 모여들고 있다. 신도시 종교용지에 설치된 천막법당 상월선원에서 스님 9명이 외부와 단절된 채 동안거 수행을 하는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사부대중의 지원 법회가 이어지고 있다. 천막 수행이 시작되고 한 달 동안 이곳을 다녀간 스님과 불자는 5만여 명에 달한다. 하루 2000명 이상이 무문관(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정진하는 수행) 정진에 들어간 스님들을 외호(外護)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위례 천막법당 상월선원에서 정진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11일부터다. 자승 전 총무원장을 비롯해 성곡 도림 재현 진각 심우 호산 무연 인산 등 9명의 스님이 부처님의 법대로 살 것과 한국 불교의 중흥과 화합을 위해 천막 정진에 들어갔다. 불교 중흥을 위한 결사(結社)를 한다는 각오로 사찰이 아닌 천막 수행을 결정했다.

천막법당의 규율도 엄격하게 정했다. 일반적으로 동안거에 들어가기 전 참가 스님들의 동의하에 '선원청규'를 정하는데 상월선원 청규는 준엄하다.

3개월간 머무는 수행처는 난방이 되지 않는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며 14시간 이상 좌선을 해야 하고 외출도 금지된다.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외부와의 소통도 해서는 안 된다. 옷은 한 벌만 허용되고, 삭발과 목욕도 금지된다. 수행자들끼리는 묵언(默言)을 지켜야 한다. 9명의 스님은 총무원에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까지 제출했다.

지난달 있었던 천막수행 입재식 때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법문을 내려 스님들의 결심을 지지했다. 진제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는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생사해탈의 대오견성(大悟見性)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단의 여러 소임을 맡았던 이들이 다시 수행의 고향으로 돌아와 수행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며 격려했다.

수행이 진행되면서 종단 차원의 지지 법회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13개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천막법당을 찾아 안거 중인 스님들을 외호하는 철야 정진을 했다.

지난 14일 열린 외호 법회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주지 정도, 마곡사 주지 원경, 수덕사 주지 정묵, 범어사 주지 경선, 화엄사 주지 덕문, 송광사 주지 진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 종단을 대표하는 사찰의 주지스님이 대거 참석했다. 원경 스님은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한국 불교는 거듭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상월선원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일 것"이라며 9명 스님의 정진을 외호했다.

천막 정진은 동안거 해제일인 2020년 2월 8일까지 이어진다.

허연 문화전문기자

특종 놓고 벌어지는 신문사 편집국 이야기

연극 '부장들'… 내일까지 공연

극단 대학로극장이 창단 30주년 기념 연극 '부장들'을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에서 공연한다. 기사 마감 10분 전, 세상을 뒤집을 만한 특종의 기사화를 두고 기자들이 벌이는 논쟁을 긴박감 있게 풀어낸 작품이다. '부장들'은 대한일보라는 가상의 언론사에서 열린 편집국 회의를 통해 언론의 민낯을 드러낸다. 작품 속 사회부장은 대통령 당선자와 내연 관계인 영화배우 성수아가 자살한 게 아니라 타살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데스크 회의에서 발제한다. 정치부장과 편집국장은 이를 무시하지만 사회부장은 시민단체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받고 다시 발제한다. 이에 편집국장과 부장들 사이에서 기사로 쓸지 말지에 대해 격론이 오간다.

매일경제, 문화일보, YTN 미디어, 이데일리 등에서 기자로 활동한 김병재 동국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가 만들었다. 언론사에서 기자로 재직했던 작가의 경험이 극 곳곳에서 묻어난다. 부장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일반인들이 알 수 없었던 언론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작품은 진실 폭로만이 최고의 선(善)인지를 묻는다. '진실'이 우리 모두가 공공의 선이라 일컫는 정의와 어떻게 결부되고 충돌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배우 김홍표를 비롯해 전(前) 국립극단 소속의 한윤춘, 손성호, 박정민, 김장동 등 대학로 유명 중견 배우들이 출연한다. 김병재 작가는 "우리 사회의 일부 기자에 대한 비판과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쫓는 기자들의 열정, 근성, 고민, 아픔을 그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문의 (02) 766-0773

서정원 기자

h point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이 아이스팩 기부를
북극곰이 고마워합니다

현대홈쇼핑은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친환경 캠페인, Green Friends
현대홈쇼핑은 매달 4,000분께 아이스팩을 기부 받아 필요한 곳에 나누어 드리고,
참여 고객께는 H.Point를 선물로 드리는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는 전자영수증 발행 및 다양한 친환경 사업 지원을 통해 푸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면세점 | 한섬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